

▶ 달러/원 주간 전망

• 빅테크 실적과 트럼프 트레이드

서울, 7월22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국내외 경제지표를 확인하는 과정 속 트럼프 트레이드 전개 양상 따라 변동성을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

주간 예상 환율 범위는 1375-1400원이다.

미국 9월 금리 인하 전망 강화에도 달러 약세가 제한되고, 위안 약세 기조도 유지되면서 달러/원 환율은 1380원대에서 쉽사리 레벨을 낮추지 못했다.

금주는 주 후반에 나오는 미국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를 주목하며 미국 물가지표 둔화 추세를 재확인할 전망이다. 다만, 현재 미국 선물시장에서는 9월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한 가운데 이미 연내 3번 인하 정도를 반영하고 있는 만큼 PCE물가지수가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시장 반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중에는 미국 7월 S&P글로벌 PMI잠정치와 2분기 GDP 속보치가 발표된다. 이를 통해 미국 경기에 관한 진단이 내려질 전망이다. 로이터 전망에서는 미국 2분기 GDP가 연율 환산으로 1.9% 증가해 1분기 1.4%보다 개선됐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와 함께 더욱 관심이 쏠리는 것은 미국 주요 빅테크 기업 실적발표다. 지난주 기술주 투매로 시장 심리가 크게 취약해져 있어 현재 증시는 변동성 리스크에 한껏 노출돼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테슬라, 아마존 등의 기업실적이 나올 예정으로 트럼프 트레이딩 테마 부상 속 이들 기업실적 결과가 증시의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주목된다.

뉴욕 증시 반응따라 국내 증시와 외인 매매 동향이 결정되고 이에 원화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달러/원 상승 탄성은 조절되고 있지만, 하단이 좀처럼 밀리지 못해 상승 변동성이 일시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공식 포기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면서 시장은 불확실성을 마주하게 됐다. 이에 따라 당분간 시장은 미국 대선 헤드라인에 초점을 맞추는 가운데 트럼프 트레이드 집중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트레이드가 주식시장에 우호적인 측면도 있지만 미국 자국주의가 강하고, 특히 중국과의 대립각을 세울 리스크를 감안하면 원화는 그닥 우호적인 위치에 놓여있지 않다.

달러와 증시 움직임에 초점을 맞추는 가운데 위안 변동성 확대 여부가 당분간 원화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역내 수급이 오피 매물을 꾸준히 내놓을지가 관건이다.

이번 주 국내 주목할 경제지표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등이다.

((yena.park@thomsonreuters.com : +82(010) 62147029:))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주간 세계 5대 이슈

⊙ 美 PCE 데이터

오는 26일에 발표되는 미국 인플레이션 지표는 연준이 향후 몇 달 안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시장 기대감을 시험할 것이다.

로이터 조사에 따르면 6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1%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됐다. PCE지수 발표는 또 다른 인플레이션 지표인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지난 6월에 4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한 이후에 나오는 것이다. 예상보다 저조했던 CPI지표는 증시 로테이션을 촉발했고 연준이 9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시장 기대를 굳혔다.

CPI지표 발표 며칠 이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2분기 인플레이션 수치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연준의 물가 목표치로 돌아오고 있다는데 "어느 정도 자신감을 더한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은 바쁜 한 주를 보내면서 테슬라와 알파벳 기업 실적에 주목할 것이다.

⊙ 우크라이나에 대한 경고

도널드 트럼프가 11월 대선에서 러닝메이트로 J.D. 밴스를 선택했다는 소식은 특히 신흥국 시장과 우크라이나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트럼프는 러시아와의 전쟁을 종식시키겠다고 오랫동안 약속해 왔으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이 반드시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한 밴스를 선택했다.

시장 입장에서는 주목해야할 부분이 있다.

우크라이나는 처음으로 전시 세금 인상을 제안했고, 블랙록, 펌코 등과 200억 달러 규모의 국채 구조조정에 대한 협상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동유럽 통화가 다시 불안해지고 있다.

미국이 무기와 지원을 줄이면 우크라이나에 재앙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적대 행위 종식을 위한 신속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대규모 재건 노력이 시작될 수 있다.

⊙ 日 인플레이션 지표

26일에 발표되는 도쿄 인플레이션 지표는 오는 31일 일본은행(BOJ) 회의 전에 소비자 물가에 대한 최종 점검이 될 것이다.

7월 인플레이션 수치의 가속화는 단기적으로 추가 통화정책 긴축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지만, 둔화될 경우 이러한 기대감이 둔화돼 엔화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애널리스트들은 올해 달러 대비 약 10% 하락한 엔화 약세로 인한 비용 압박으로 인플레이션이 BOJ 목표치인 2%를 훨씬 상회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이는 의도치 않게 가계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일본 정부 개입이 의심되면서 엔화가 38년래 최저치에서 벗어났지만,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좁혀질 때까지는 그 영향은 단기적일 것으로 보인다.

⊙ 유럽은행들의 실적

2분기 실적이 본격적으로 발표되면서 유럽 은행들의 수익성 개선과 주가 상승세가 최근 시험대에 올랐다.

핵심은 유럽중앙은행이 금리를 추가로 인하하고 영란은행이 정책을 완화할 준비를 하는 상황에서 고금리 덕분에 급증해온 은행들의 순이자이익이다.

또한, 투자자들은 또한 최근 선거 기간 동안 프랑스 은행 주가가 급락하는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심화됨에 따라 대출기관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싶어할 것이다.

수요일에는 독일의 도이치은행 DBKGn.DE, 영국의 로이드 LLOY.L, 프랑스의 BNP파리바 BNPP.PA, 스페인의 산탄데르 SAN.MC, 이탈리아의 유니크레딧 CRDI.MI 등이 실적을 발표하고,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은행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 유로존 경제

유로존 경제는 전반적인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관광업에 힘입은 서비스업 강세로 인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불편할 정도로 높게 유지되면서 유럽중앙은행(ECB)에는 큰 딜레마가 되고 있다.

24일에 발표되는 구매관리자지수(PMI) 결과를 통해 ECB 과제가 좀 더 쉬워지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유로존 PMI는 ECB가 금리를 3.75%로 동결하고 "데이터에 의존한다"며 향후 가이드선스 제공을 거부한 이후 영향력이 더 클 수 있다.

머니마켓은 ECB의 9월 금리 인하를 확고하게 예상하며 현재 유로존 주식, 국채, 유로를 지지하고 있지만, PMI 결과가 ECB 시각을 바꿀 위협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 美주식시장/주간전망

• 견실한 기업 실적 기대

뉴욕, 7월22일 (로이터) -

실적 시즌이 본격화되면서 낙관적인 투자자들은 견실한 기업 실적이 올해 미국 증시 랠리를 냉각시킨 기술주들의 하락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P500 기술업종지수는 불과 일주일여 만에 6% 가까이 하락하여 약 9000억 달러의 시장 가치를 잃었다. 금리 인하 기대와 도널드 트럼프 2기 대통령직에 대한 전망 속에 올해 상승했던 종목에서 부진을 보였던 종목들로 투자자들이 이동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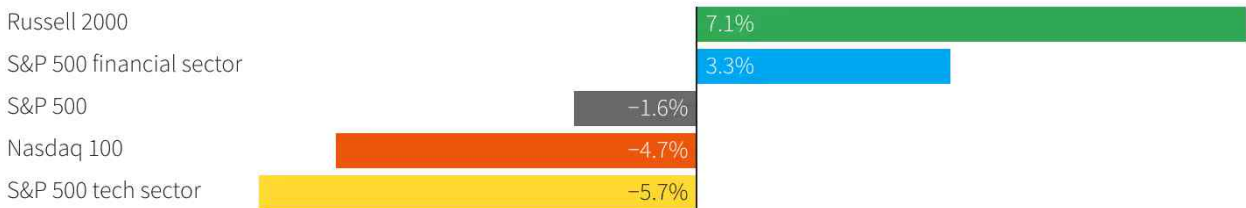
S&P500지수는 이보다는 약간 나은 결과를 보였다. 기술주 하락이 금융, 산업, 소형주 등의 급격한 상승으로 다소 상쇄되면서 일주일여 만에 1.6% 하락했다.

2분기 실적은 기술주가 다시 주목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테슬라와 구글 모기업 알파벳이 23일 실적을 발표하며,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은 다음 주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웰스파고 투자 연구소의 수석 글로벌 시장 전략가인 스콧 렌은 "대형 기술주가 주도하고 있으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면서 "그들은 돈을 벌고 있고, 이익을 늘리고 있으며, 틈새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Market rotation

US stock market has seen dramatic moves since a cooler-than-expected inflation report on July 11



Source: LSEG | Graphic by Lewis Krauskopf

시장 선두주자들의 강력한 실적은 엔비디아와 같은 종목의 급등으로 부각된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를 포함하여 최근 메가캡을 괴롭힌 일부 우려를 완화할 수 있다.

반면에 실적이 부진하거나 인공지능 관련 지출이 예상보다 적다는 징후가 나타나면 올해 주가를 끌어올린 기술 우위론이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 알파벳, 테슬라, 아마존닷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플랫폼, 애플, 엔비디아는 올해 S&P500 상승의 약 60%를 차지했다.

시장 선두주자들의 기업 실적은 높은 기대를 충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LSEG IBES에 따르면, 기술 섹터는 전년 대비 이익이 1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알파벳과 페이스북 모기업인 메타를 포함한 통신서비스업종 이익은 약 22%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S&P500 전체 이익 증가율 전망치인 11%를 상회하는 수치다.

(김지연 기자)

((jiyoun.kim@thomsonreuters.com))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금주 국내 경제 주요 일정

서울, 7월22일 (로이터) - 이번 주 국내 주요 경제 일정

7월22일(월)

- ⊙ 관세청: 7월 1일~7월 20일 수출입 현황
- ⊙ 한국은행: BoK 경제연구: 기대인플레이션 불일치와 통화정책 파급효과 (12:00)

7월23일(화)

- ⊙ 한국은행: 2024년 6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 (06:00)
- ⊙ 기획재정부: 부총리 경제관계장관회의 (08:00)
- ⊙ 한국은행: 2024년 2/4분기중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동향 (12:00)
- ⊙ 기획재정부·한국은행: 경제 부총리·한은 부총재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7.23~28,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7월24일(수)

- ⊙ 한국은행: 2024년 7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06:00)
- ⊙ 통계청: 2024년 5월 인구동향 (12:00)

7월25일(목)

- ⊙ 한국은행: 2024년 7월 기업경기조사 결과 및 경제심리지수(ESI)(06:00)
- ⊙ 한국은행: 2024년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08:00)
- ⊙ 한국은행: 2024년 8월 통화안정증권 발행계획 (17:00)
- ⊙ 기획재정부: 2024년 8월 국고채 및 재정증권 발행계획 (17:00)

7월26일(금)

- ⊙ 기획재정부: 2차관 물가관계차관회의 (09:00)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서울, 7월15일 (로이터)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날짜	시간	국가	지표	기간	로이터 전망	이전수치
7월22일	10:15	중국	대출우대금리 1Y	7월		3.45%
7월22일	10:15	중국	대출우대금리 5Y	7월		3.95%
7월22일	21:30	미국	전미활동지수	6월		0.18
7월23일	23:00	유로존	소비자신뢰지수 잠정치	7월	-13.2	-14.0
7월23일	23:00	미국	기존주택판매	6월	4.00M	4.11M
7월24일	09:30	일본	지분은행 제조업 PMI 잠정치	7월		50.0
7월24일	17:00	유로존	HCOB 제조업 PMI 잠정치	7월	46.3	45.8
7월24일	20:00	미국	모기지마켓지수	7월19일 주간		214.1
7월24일	21:00	미국	건축허가건수 수정치	6월		1.446M
7월24일	22:45	미국	S&P글로벌 제조업 PMI 잠정치	7월		51.6
7월24일	23:00	미국	신축주택판매	6월	0.640M	0.619M
7월25일	17:00	유로존	총유동성(M3)증가율	6월		1.6%
7월25일	17:00	유로존	가계대출	6월		0.3%
7월25일	21:30	미국	내구재주문	6월	0.3%	0.1%
7월25일	21:30	미국	GDP 속보치	2분기	1.8%	1.4%
7월25일	21:30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7월15일 주간		243k
7월26일	08:30	일본	도쿄 CPI	7월		2.3%
7월26일	21:30	미국	개인소득 MM	6월	0.4%	0.5%
7월26일	21:30	미국	소비 MM	6월	0.3%	0.2%
7월26일	21:30	미국	PCE 물가지수 MM	6월	0.1%	0.0%
7월26일	23:00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확정치	7월	66.0	66.0
7월26일	10:30	중국	산업이익 YTD	6월		3.4%

• 금주 해외 경제 주요 이벤트 (괄호 안은 한국시간)

7월22일 (일)

- ⊙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 (25일까지)
- ⊙ 제휴장국가: 태국 등

7월24일 (수)

- ⊙ 캐나다 중앙은행, 금리 발표 및 통화정책 보고서 발표 (오후 10시45분)

▶ 지난주 로이터 한글 뉴스 서비스 주요 기사

• (단독)-미국인 5명 중 4명, 정치적 혼란 우려 - 로이터/입소스 여론조사

워싱턴, 7월17일 (로이터) -

11월5일 대통령 선거가 더 많은 정치적 폭력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증가하는 등 미국인들이 도널드 트럼프 암살 시도 이후 국가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로이터/입소스 여론조사에서 확인됐다.

15-16일 이틀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에 대한 등록 유권자들의 지지율이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을 43% 대 41%로 근소한 차이로 앞섰는데, 이는 오차범위 3%포인트 이내로 트럼프의 암살 시도가 유권자 심리에 큰 변화를 일으키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결과다.

그러나 유권자의 80%(민주당과 공화당 비슷한 비율)가 "국가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는 주장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온라인으로 실시된 이 여론조사는 등록 유권자 992명을 포함한 전국 성인 1,20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유권자의 약 84%는 선거 후 극단주의자들이 폭력 행위를 저지를 것을 우려한다고 답했는데, 이는 지난 5월에 실시한 로이터/입소스 여론조사에서 74%의 유권자가 이러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답한 것보다 증가한 수치다.

미국인들은 폭력을 두려워한다고 답했지만 폭력을 묵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2023년 6월에 실시한 로이터/입소스 여론조사 때의 12%보다 감소한 5%의 응답자만이 자신이 속한 정당의 누군가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용인될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공화당원의 65%는 트럼프가 "신의 섭리 또는 신의 뜻에 의해 선택을 받았다"고 답했다. 민주당원 중 11%도 이에 동의했다.

• (종합)-글로벌 전산 장애로 항공편 운항 중단..은행, 통신, 미디어 등 타격

7월19일 (로이터) -

19일 전 세계적인 기술 장애로 인해 항공편의 발이 묶이고 일부 방송사는 방송을 중단했으며 은행부터 의료 서비스까지 여러 산업에 걸쳐 운영 차질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아메리칸항공, 델타항공, 유나이티드항공, 앨리전트항공은 통신 문제를 이유로 항공편 운항을 중단했다. 이러한 조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여러 저가 항공사에 영향을 미친 클라우드 서비스 중단을 해결했다고 밝힌 직후에 이루어졌지만, 관련성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유나이티드는 성명에서 "타사 소프트웨어 중단으로 인해 유나이티드를 포함한 전 세계 컴퓨터 시스템이 영향을 받고 있다. 시스템을 복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모든 항공기를 출발 공항에 대기시키고 있다.이미 이륙한 항공편은 목적지까지 계속 운항하고 있다"고 밝혔다.

호주 정부는 미디어, 은행, 통신 회사들이 겪은 장애가 글로벌 사이버 보안 회사인 클라우드스트라이크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클라우드스트라이크가 고객들에게 보낸 경고를 로이터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회사의 "팔콘 센서" 소프트웨어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와의 충돌을 초래해 블루 스크린이 표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시간 19일 오후 2시30분에 전송된 이 경고는 수동 해결 방법도 공유했다.

클라우드스트라이크 대변인은 논평을 요청하는 이메일이나 전화에 응답하지 않았다.

호주의 국가 사이버 보안 코디네이터인 미셸 맥기네스는 X에 올린 게시물에서 이번 서비스 중단이 사이버 보안 사고임을 암시하는 정보는 없다고 말했다.

장애는 광범위하게 파장을 미쳤다.

도쿄, 암스테르담, 베를린, 여러 스페인 공항 등 전 세계 공항이 시스템 문제와 지연을 보고하는 등 여행 업계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탑승객 수 기준 유럽 최대 항공사 라이언에어를 비롯한 국제 항공사들은 예약 시스템 문제와 기타 혼란에 대해 경고했다.

영국에서는 의사들이 사용하는 예약 시스템이 오프라인 상태라고 여러 의료 관계자들이 X에 게시했고, 영국 주요 뉴스 방송사 중 하나인 스카이뉴스는 생방송을 송출하지 못해 사과하는 등 방송 중단 사태를 겪었다.

호주와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는 은행과 기타 금융 기관이 고객에게 서비스 중단을 경고했고, LSEG그룹은 데이터 및 뉴스 플랫폼인 워크스페이스의 장애를 보고했다.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AWS는 성명을 통해 "AWS 내 윈도우 EC2 인스턴스 및 워크스페이스에 대한 연결 문제 보고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된 모든 장애가 클라우드스트라이크 문제와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신안나 기자)

((anna.sheen@thomsonreuters.com))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